동아일보 - 1935. 12. 13/ 3면/ 1단

現代思想의 混亂
混亂을 克服하는 唯一의 길(六)

蘇哲仁

近世思想을 發展시킴에 잇어서 「베—큰[베이컨]」은 四大 偶像說로써 그 當時의 思想 及 □□的 硏究를 根本的으로 批判하엿다. 當時의 思想家 及 學者들은 다만 在來의 傳統的 思想 及 □□이 □ 그 如何한 것임을 不拘하고 正當視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絶對的인 것으로만 □信하엿지 事實에 잇어서 事物의 根本的 理□와 眞理를 精密하게 探査考究하지 아니하고 形式的 「타부—」化하엿기 때문에 이것은 學者로서 當然히 버려야할 第一偶像 卽 「□□偶像」이라고 하엿다. 學問에 잇어서 뿐만 아니라 日用常識을 絶對的 □□化 或은 眞理化하게까지 모든 것이 形式的이며 □□的이며 따라서 本質的 存在와는 □離한 것이 本質的 存在로 □□되엿으며 송장이 산 것을 侵害하게 되엿섯다. 더욱 言語에 對하야 이와 같은 傾向이 甚하엿다. 卽 □□上 □現을 實物體와 同一視하게 되엿다. 卽 무엇이던지 어떠한 것이던지 言語로 表示된 것은 全部 □□的 存在라고 思惟하엿다.— 여긔에서는 □□이 □□□뿐이요, □□法은 發達하지 아니하나 □□法은 □□의 □□인 原因이 무엇이며 어데 잇는가를 明示한다.—그런 故로 文學的 知識만을 眞情한 □□이라고 하고 學□을 硏究함에 잇어서 現象 自體를 □□하던지 或은 自然界의 모든 對象을 對象으로 하지 아니하엿기 때문에 여긔는 여러 가지 □□만이 存在할 뿐이요, 實□現象 及 物體에 依存한 것을 發見하지 못하엿다. 卽 在來의 □□ 本質에 依하야 變革하지 아니하엿다. 그런 故로 이런 것을 第二偶像 卽 「市□偶像」이라고 하엿다. 그뿐만 아니라 客觀的 社會는 □□함에 不拘하고 主觀的 □□을 □□하므로써 그것을 否認하며 或은 個人의 經□의 蓄積을 조곰도 考慮하지 아니함으로써 時代와 □□하며 時代□가 되고 마니 이것을 第三偶像 卽 「□□偶像」이라고 하엿다. 이와 같은 □見을 固執하게된 結果는 主觀性의 絶對化로 因하야 自然界에 對하야서도 人間 自身의 性質을 投射하야 自然界를 擬人化시키며 因果的 過程에 잇어서도 그것을 目的觀的 見地에서 그 發展을

□□하는 것을 第四偶像 卽 「□□偶像」이라고 하야 在來의 舊思想에 對하야 反旗를 들엇다.

이와 같이 「베—큰」은 모든 方面에 잇어서 自然科學的 硏究를 貫徹시키므로써 近世 社會發展의 基礎를 確立시킨 것이엇다. 따라서 近世科學의 發達과 唯物論的 思想의 發展이 여기에서 由來하엿다. 이와 같은 自然科學的 硏究와 唯物論的 思想의 發展은 市民社會의 基礎를 確立시키엿으며 그 發展을 助長하엿다. 따라서 市民社會의 發達은 自然科學의 發達을 極度로 向上시키엿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反面에잇어서 市民社會의 發達함과 같이 解放된 것은 人間의 理性이다. 그런 故로 모든 歷史를 理性에 依存한 것으로써 批判하며 따라서 國家와 社會, 經濟와 法律, 哲學과 宗敎 等은 理性批判을 根本原理로 함으로써 새로 形成 □□□□. □□□□ 理性의 絶對化는 市民社會의 成熟과 上半하엿다. 여긔에서 市民社會의 發達의 初期에 잇어서는 自然科學的 思想이 根本的이엿으나 理性批判의 發達로 因하야 理性批判의 思想이 自然科學或은 一般과학에 沈□하게 되엇다. 在來의 아즉 充分히 發達하지 못한 機械論的 自然科學的 唯物論思想은 市民社會의 □□과 同時에 觀念論化하엿다. 그런 故로 自然科學 及 一般科學은 技術的으로나 部分的으로는 極度의 發展을 하여왓으나 全體的으로는 不合理한 그 自體 內部와 構成에 依하야 結局은 市民社會의 過程과 같이 危機에 直面하게 된 것이다.

그런 故로 今日의 自然科學이나 一般科學을 「物質的」이라고 하야 排斥하는 것은 現代의 不合理를 □□하기 爲함이며 도로혀 그 不合理를 助長하며 觀念化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自然科學 及 一般科學을 더 發展식킴에는 그것을 物質的인 本體로 還元시켜야 한다. 卽 在來의 非科學性으로 還元시켜야하나니 在來의 自然科學 及 一般科學을 止揚하므로써 成立되는 □□法的 自然科學 及 一般科學이 그것이다.

더욱 朝鮮에 잇어서는 모든 것이 너무 發達하므로써 苦痛을 받는 것 보담도 發達하지 못하야 더 苦痛을 받는다. 自然科學 及 一般科學에 잇어서도 그 弊害를 論하는 사람이 不少하다. 그러나 朝鮮에 잇어서는 아즉 그것이 發達하지 못하야 苦痛을 받는 것이 尤甚하다. 그런 故로 朝鮮에 잇어서는 自然科學 及 一般科學의 發達이 極히 必要하다.

自然科學 及 一般科學의 發達에 依한 唯物論的 思想 더욱 辯證法的, 唯物論的 思想은 現實的 對象을 歷史的, 社會的 必然性과 그 客觀的 法則에 依한 把握을 明示한다.

그런 故로 辯證法的 唯物論이야말로 現代思想의 混亂 混亂期에 잇는 思想의 特點, 卽 懷疑的이며 神秘的이며 形而上學的이며 데카단的으로 批判하며 그 消極的 方面의 克服, 卽 否定의 否定에 達할 수 잇을 것이다. 이것은 實踐을 媒介로 하니 여긔에 思想의 社會性이 잇다.(了)